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수론아!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래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론아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어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메로 치고 강한 팔로 팔리므로 심지어 주려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어 채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흑 백향목을 베이며 흑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흑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흑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개역, 이사야 44:1-17]

저 회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다보니 이웃과 많이 나눠먹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네 할머니들이 ‘이러지 말고 나가서 팔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마침 중앙교회 뒤편에 있을 때에 그 앞에 조그마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그마한 콩나물시루를 들고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 놀이터가 된 겁니다. 콩나물 밭 떼는 것이 일이 많은가 봅니다.

하루 종일 모여앉아서 콩나물 머리 떼고 밭 떼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콩나물 장사를 좀 했는데 그 일로 저희 아버님과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하고 싶고 결국은 아들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물었죠. “해도 되느냐?”고. “어머니 지금 연세에 누구에게 물어서 할 때는 지나지 않았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왜 그걸 못하게 했을까요? 창피하다고요? 아들 위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말로는 “아 이름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 이름 버린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콩나물집 아 아이가” 제 이름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름 버린다고 못하게 하는데 “아들도 괜찮고 며느리도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하고 나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힘이 있는데 남편은 별로 힘이 없더군요.

아 이름 버린다고 극구 못하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콩나물집 아나 별치는 영감집 아나 비슷하다 싶은데도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유강으로 이사 온 다음에 그만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호적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술도가집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레방아집 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린에 있는 천사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두쇠? 듣기가 거북하죠? 요즘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꿀통’ 이것 참 머리 아픈 표현입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가면 내가 잘 안 듣는 데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쯤은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서 관계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 부르시겠지요? 이름 놔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뭐라고 부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러면 뭘텐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야곱아! 그랬다가 이스라엘아! 그랬다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예수론아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요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을 지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은 자에게 물을 주며'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같은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마른 땅에 시비가 흐르게 하며'라고 말할 때 마른 땅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이 흐르지 않아서 갈라진 마른 땅, 아무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땅, 얼마나 답답합니까? 70년이나 포로생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70년이나 지났으니 그 땅에 동화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살아봐야 삼류 국민 아니면 사류 국민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자유를 존중하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습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저 나라에서도 지금도 유색인종은 많은 팔시를 받고 삽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목마른 자요 갈한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네 인생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친다는 노래보다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는 노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다는 애깁니다. 인생은 고통,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까?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재미난 표현이지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니까 '하고 후회해라' 좋은 정답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포로생활을 70년 한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바램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사는 듯 싶어도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사는 듯 싶어도 그것이 갈한 인생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그 재산이 나를 지배하여 더 불행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목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그네 길이요 험한 고통의 세월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여전히 목마르고 마른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까? 1, 2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래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론아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같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비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라는 것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잔머리 굴려가며, 자기 피만 부러가며 열심히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뒤를 밀어주신다는 보증으로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며 내가 너를 돌아보고 있다'는 보증으로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종이면 좋고 택한 것이면 택한 것이지 왜 두 가지 표현을 씁니까?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택했으니 내 것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돌봐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데려가서 종처럼 부려 먹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이라고 불렀지만 때로는 애인이라 부르고 때로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넌 나의 신부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사랑하는 존재로 너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 여수룬아라고 부릅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의롭고 정직한 자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뒤에서 돌봐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여수룬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성품을 가만히 돌아보면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 봐도 타고난 성품은 참 못되고 고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 성품이 변하고 바뀌어져서 좀 쓸만해졌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돌봐주시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여수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요.

형제를 바라볼 때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볼품없고 이런 성질 가지고 무얼 해 먹을까 싶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내 형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수룬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땅에 시냇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세요? 받을 게 많지요? 직장도 얻어야 되고, 시험도 붙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가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이시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갈한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 역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 역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풀 가운데에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넓은 잔디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보세요. 얼마나 힘차게 솟아오릅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가 있어도 어떻게든 비집고 나와서 그 바위를 다 덮어 버립니다. 메마른 땅에서 풀이 무성하게 솟아오르고 수양버들이 척척 늘어지는 것만큼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뜻

입니다.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징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손으로 기록하고 라는 표현은 '손에 기록하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의 것' 하고 몸에 써 붙이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우면 그럴까요. 연애하는 아이들이 때로는 나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있음을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손에 뭍 끼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난 누구의 것, 나하고 누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음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싶어서 못 견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은 난 하나님의 것이라고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써서 자랑하고 다니며 스스로 야곱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럽습니까마는 그런 야곱이 후일에 당당하게 내가 야곱의 후손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을 때가 어느 때일까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두들겨 패도 안되고 감옥에 가뉘도 안되고 도무지 겁이 없어져 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렸던 자랑스러움과 당당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전쟁을 해서 지면 그 나라의 신이 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보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냐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별 감동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됩니까?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없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신감,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다른 능력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은 돈만 없어지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권력 때문에 힘쓰고 있는 사람도 권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초라하고 비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 권력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내게 남아 있다면 나는 여전히 처음부터 다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장래를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사주팔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듣고 혹시 가슴에, 마음에 썩한

게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게에 이런 저주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세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보다 셀 게 없습니다. 사주팔자 그것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탓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맞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가 다 변한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원고를 끝내놓고 오랜만에 집사람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 잘 하는 것 중에 사주팔자가 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지 가끔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설교 원고를 써 놓은 줄도 모르고 좋은 소재거리를 또 제공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자기 사주를 봐 주고 책을 한권 줬대요. 거의 잘 맞는데 흥 씨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그 책에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은표 사주를 보더니 '애가 참 외롭게 클 아인테요' 하더라고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 어지간히 맞네. 왜요? 한 때 제가 우리 집사람을 포기하고 혼자 살 궁리를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팔자인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절대 결혼하면 안된다는 흥 씨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것은 잘 맞는데 제 것이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는지 아십니까? 타고난 사주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집사람을 만났으니 집사람이 보기에 안 맞는 겁니다.

사주팔자든지 점쟁이가 하는 말이든지 그게 쩡하게 머리에 남아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보다 그 점쟁이 말이 더 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원래 맞았던 사주팔자, 점쟁이가 말한 액땀, 그것들이 다 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상 우리를 건드릴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사주팔자가 걱정되고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안 맞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도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찌어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란 말입니다. 나와 같이 구한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 백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온 신이 누가 있느냐? 있거든 말해 보라고 합니다. 민족들마다 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신 중에 이런 기적을 베풀며 인도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8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 중에 나처럼 너희 조상에게 나타나서 약속하고 이끌어 낸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증인이 되라는 얘깁니다. 신명기 31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경 나를 버리고 포로로 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 노래를 가르쳐 주어라. 포로 생활하면서 뜻도 모르고 부르던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지 깨닫게 되거든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적어도 80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노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책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혹 아니신가요? 우리가 말 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열심히 가르쳐도 잘 안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SFC 수련회 주제였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라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자라는 시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아이들은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시대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이 아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없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불행들을 이겨내는, 이 모든 불행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수요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을 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내 주변의 불행을 나도 모르게 피해갔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게 왜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이 닥치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어려움이 많으시거든 자신을 유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무슨 귀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보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아픔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길게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또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든 겁니다?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데 모릅니다.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불린다는 말은 불에 달군다는 뜻입니다. 철을 숯불에 달구고 '메로 치고 강한 팔로 팔리므로' 팔린다는 얘기는 팔팔하게 한다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불을 세게 한다는 뜻입니다. 철을 숯불에 달구어 팔로 열심히 불길을 세게 하나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주려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공 얘기도 나오네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정규라는 말 저도 여기서 처음 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컴퍼스입니다.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며'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복 달라고 엎드렸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상 만드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어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성을 다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것이죠. 돼지머리도 웃는 놈이 좀 더 효험이 있답니다. 그럼 돼지를 어떻게 웃겨요? 웃는 돼지를 만들어야 효험이 더 있다? 목공이 우상을 만들 때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13절 중간에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데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어야 더 능력이 있는 모양이죠?

15절이 하는 이야기는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불도 때고 우상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이 나무가 불에 탈 것인지 아니면 우상이 될 것인지 누구 손에 달린 거냐는 말입니다. 그거 사람 손에 달린 것 아니냐? 땀감으로 쓸 것인지 우상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정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20절에 보시면 재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재는 먹는 것조차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목구멍에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은들 그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우상하고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것이 확증되면 그 하나님께서 될 하겠다는 겁니까? 아홉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됩니까? 22절이 답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두려워 하지 말라시며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만이 참 신이라고 하신 그 결론이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 깨끗이 덮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참 이 말이 어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용서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용서했으니 회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능력도 힘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고백하면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한 말이 얼마 갑니까? 정말 전심을 다 해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 갑니까? 때로는 한번 벨은 말에 대해서 평생 완벽하게 지켜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말은 그렇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한번 벨은 말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리저리 않습니까? 난 그때 진심으로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만큼 값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은혜란 다른 말로 하면 공짜로 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회개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22절,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고 내가 내 발로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내가 내 입으로 회개했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 속에는 '야 이 거짓말 잘 하고 남 잘 속이고 잔머리만 굴리는 너 야곱아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뒤에서 돌아보며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 그 하나님 버리고 네 멋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나? 그래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룬아라고 부르십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로 의로운 자로 삼겠노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현실이 어떠한든 아무리 절망스럽든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영 형편없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아 그렇더라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23절에는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증인으로 섰던 하늘이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늘이, 땅이 즐거이 노래를 부릅니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천지와 만물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요? 가끔은 ‘오빠’ 하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제가 자랄 때 오빠라고 부르는 동생이 없어서, 고3 때 처음으로 오빠라는 말을 한번 듣고 한, 두 달 정도 붕 떠서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오빠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감동했던 말입니다. 제겐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빠 하고 문자가 날아오면 보지도 않고 다 지워버립니다. 메일에 홍순관님 하고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지워버립니다. 날 보고 이렇게 부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애깁니다. 전화기를 들면 ‘사장님!’ 하죠. 괜찮은 말이잖아요 오빠, 홍순관님, 사장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전화가 와요, ‘똥아!’ 어느 놈이 건방지게? 아뇨! 잘 받습니다.

언젠가 새벽 2시쯤 저희 아버님이 “야야, 전화 한번 받아봐라 니 전화 같다.” 그래서 받아 드니까 새벽 2시쯤에 허 꼬부라진 소리로 “이 미친 놈아” 하면서 마구 떠들어대는데 한참 듣다가 “야, 아무래도 너 많이 취한 것 같다. 그 옆에 있는 놈 바꾸어 봐라.” 그래 바꾸었더니 말이 되는 겁니다. 흔하진 않습니다마는 제 친구 중에 술 좋아하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춘천에 있다가 어떻게 둘이서 밤중에 만났나 봐요. 둘이서 한잔 하다가 “도저히 너 생각이 나서 안되겠다.” 해서 전화를 건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욕을 해대니까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욕을 해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넘긴 겁니다.

좋은 말, ‘오빠’ 해도 듣지 않고 ‘사장님’에도 대꾸 안 하는데 욕만 퍼질러대는 전화를 왜 받습니까? 이름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는 그 놈이 누구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놈이 제 친구니까요. 어릴 때부터 나를 참 좋아했던 누나가 전화 걸어서 ‘똥아!’ 하는데 왜 안 받아요? 이제는 그렇게 불러줄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이 슬프지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받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론아 하는 말이 ‘의롭고 정직한 자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낮이 많이 간지럽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종,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며 내가 뭘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힘 드는 일, 걱정스러운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어도 좋고 이스라엘이어도 좋고 예수론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이름, 내 천성이 드러나는 이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그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